

		<b>보 도 자 료</b>		전주국제영화제
배포일	2025. 05. 06.	보도 요청일	2025. 05. 06.	
담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063)280-7912 publicity@jeonjufest.kr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인공들! 올해 17개 시상 발표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5월 6일(화) 1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시상식 개최
- 국제경쟁 <값아야 할 빛이 너무 많다>, 한국경쟁 <겨울의 빛>, 한국단편경쟁 <겨우살이> 대상 수상
  - 국제경쟁 작품상 <시인의 마음>, 심사위원특별상 <저항의 기록>
- 한국경쟁 농심신라면상 <여름의 카메라>, 배급지원상, CGV상, 왓차상 <3670>
  - <3670>의 김현목, <그래도, 사랑해.>의 손소라 배우상 수상
- 한국단편경쟁 <불쑥>의 김해진 감독상, <별나라 배나무>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5월 6일(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부문 등 총 17개를 선정, 시상했다.



5월 황금연휴 동안 관객과 영화적인 순간을 함께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57개국 224편의 영화 중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은 총 14편이다. 국제경쟁 문세 트리올라, 미셸 캐리, 이반 펀드, 김의성, 김초희 심사위원, 한국경쟁 다미앵 마니벨, 커티스 월러스척, 곽신애 심사위원, 한국단편경쟁 에밀리 푸아리에, 변승민, 이설 심사위원, 넷팩(NETPAC) 상 바비 사르마 바루아, 김영조, 박관수 심사위원까지 총 14인의 심사위원은 시상식 전날까지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각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6일(화) 16시부터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은 우범기 조직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경쟁부문 감독 및 배우, 초청 게스트 등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 우범기 조직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의 작품과 영화에 대한 헌신은 한국 영화, 더 나아가 세계 영화의 미래를 밝힐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라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의 게스트들을 축하했다.

국제경쟁 부문 대상은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의 <값아야 할 빛이 너무 많다>가 수상했다. 수상 후 단상에서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은 “지금 제 기분이 달 위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다. 어떤 영화제에서도 보지 못한 환호로 함께 해준 전주국제영화제 관객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수상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천더밍 감독의 <시인의 마음>은 NH농협은행이 후원한 작품상을, 알레한드로 알바라도 호다르, 콘차 바르케로 아르테스 감독의 <저항의 기록>은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특별상을 대리 수상한 사라 산체스 가르시아 프로듀서는 “검열된 영화들, 금지된 영화들을 만든 이전의 감독들에게, 그리고 이 후로도 세계 어디에선가 영화를 만들며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을 감독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며 수상의 영광을 동료 영화인들과 함께 했다.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조현서 감독의 <겨울의 빛>이 후지필름 코리아가 후원한 한국경쟁 대상을 수상했다. 조현서 감독은 “계속 절제하고 억누르라는 감독의 부탁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해준 성유빈 배우를 비롯해 끝까지 감독인 저를 믿고 함께 한 제작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 밝히며 함께 영화를 제작한 제작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여름의 카메라>의 성스러운 감독은 기업 농심의 후원으로 신설된 농심신라면상의 첫 주인공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신설상인 농심신라면상은 심사위원단에게 선정된, 미래가 기대되는 한국경쟁 부문 감독에게 한화 5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성스러운 감독은 “이 상을 수상하면서 쿼어가 안전한 세상에 미약하게나마 일조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속 더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박준호 감독의 <3670>은 주식회사 지원이 후원하는 배급지원상, CGV상, 왓차상에 한국경쟁 상영작 출연 배우 중 2인을 선정하는 배우상을 <3670> ‘영준’ 역의 김현목 배우가 수상하며 총 4관왕을 달성했다. 4관왕을 달성한 <3670>의 제작진들은 수상마다 단상에서 함께 축하하며 시상식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그래도, 사랑해.> ‘소라’ 역의 손소라 배우가 또 다른 배우상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1,510편으로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한 한국단편경쟁 부문의 30편 중 대상(후지필름 코리아 후원)의 영광은 황현지 감독의 <겨우살이>에 돌아갔다. 무대에 선 황현지 감독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영화라는 언어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수상의 기쁨을 표했다.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감독상은 <불쑥>의 김해진 감독이 차지했다. 심사위원특별상은 신율 감독의 <별나라 배나무>가 받았다. 단상에서 신율 감독은 수상으로 떨리는 감정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다른 상영작들을 보면서 영화가 다른 생명들을 살린다는 느낌을 받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른 살아있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며 감동적인 소감을 남겼다.

특별부문 4개 상 중 한국 장편영화 전체 상영작 중 1편을 선정해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을 지원하는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지원상은 차정윤 감독의 <만남의 집>에 돌아갔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

(NETPAC) 심사위원단이 비경쟁부문 아시아 영화 상영작 중 1편을 선정, 시상하는 넷팩상은 쓰타 데쓰이치로 감독의 <검은 소>가 수상했다.

지역공모로 선정된 상영작 중 1편을 선정하는 J 비전상은 김태휘 감독의 <빈집의 연인들>이 수상했으며 한국 장편 다큐멘터리 상영작 중 1편에 시상하는 진모터스 후원의 다큐멘터리상은 김일란 감독의 <에디 앨리스: 리버스>가 수상했다.

4월 30일(수) 개막해 57개국 224편 중 17개의 시상을 마무리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9일(금)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관객과 만나며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부문		작품명	감독	국가
국제경쟁	대상	값아야 할 빛이 너무 많다 <i>Mad Bills to Pay (or Destiny, dile que no soy malo)</i>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Joel Alfonso VARGAS	미국 United States
	작품상 (NH농협은행 후원)	시인의 마음 <i>Always</i>	천더밍 CHEN Deming	중국, 프랑스, 대만, 미국 China, France, Taiwan, United States
	심사위원특별상	저항의 기록 <i>Resistance Reels</i>	알레한드로 알바라도 호다르, 콘차 바르케로 아르테스 Alejandro ALVARADO JÓDAR, Concha BARQUERO ARTÉS	포르투갈, 스페인 Portugal, Spain
한국경쟁	대상 (후지필름 코리아 후원)	겨울의 빛 <i>Winter Light</i>	조현서 CHO Hyun-suh	한국 Korea
	농심신라면상	여름의 카메라 <i>Summer's Camera</i>	성스러운 Divine SUNG	한국 Korea
	배급지원상 (주식회사 지원 후원)	3670	박준호 PARK Joonho	한국 Korea
	배우상	3670	김현목 배우 KIM Hyeonmok (Actor)	한국 Korea
		그래도, 사랑해. <i>All Is Well, I Love You.</i>	손소라 배우 SON So-ra (Actor)	한국 Korea
	CGV상	3670	박준호 PARK Joonho	한국 Korea
	왓차상	3670	박준호 PARK Joonho	한국 Korea
한국단편 경쟁	대상 (후지필름 코리아 후원)	겨우살이 <i>mistletoe</i>	황현지 HWANG Hyeonjee	한국 Korea
	감독상 (교보생명 후원)	불쑥 <i>SLOWLY</i>	김해진 KIM Haejin	한국 Korea
	심사위원특별상	별나라 배나무 <i>A Pear Tree In The Star Village</i>	신율 SHIN Yul	한국 Korea
특별부문	넷팩상	검은 소 <i>Black Ox</i>	쓰타 데쓰이치로 TSUTA Tetsuichiro	일본, 대만, 미국 Japan, Taiwan, United States

	다큐멘터리상 (진모터스 후원)	에디 앨리스: 리버스 <i>Edhi Alice: REVERSE</i>	김일란 KIM Ilrhan	한국 Korea
	멕시코국립시네테카 개봉지원상	만남의 집 <i>Home Behind Bars</i>	차정윤 CHA Jeong-yoon	한국 Korea
	J 비전상	빈집의 연인들 <i>The Burglars</i>	김태휘 KIM Taehwi	한국 Korea